

종합·해설

“정치인 범죄인 취급·표적사정 말라” “F1·여수박람회 지원 소홀 따지겠다”

여야, 검찰 전방위 수사에 강력 반발

C&그룹과 청목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청원경찰총협의회(이하 청목회)가 후원금을 제공한 국회의원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1일 청원경찰 입법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인을 너무 범죄인시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후원금 10만원 받는 것까지 범죄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검찰이 전방위 수

사를 벌이면서 구체적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만 흘리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당 반응은 더욱 격양됐다. 야권을 겨냥한 표적 사정이라는 주장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비리와 부정 방풍이 과장되고 하겠는가”라며 “태은 물론 철저하게 규명되고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치보복이나 야당탄압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1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된다면 의정활동을 하지 말고, 후원회

모금법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방풍이 신도 과장이 과거 에세이집을 대법원 재판사자라는 점을 들어 자신을 태광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주장에 대해 “그런 로비를 하려면 방풍이 과장하고 하겠는가”라며 “태광의 직원 한 사람도 모르고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야당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민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에서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1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된다면 의정활동을 하지 말고, 후원회

■ 국회 대정부질문 광주·전남의원 이슈와 전략

서민정책 후퇴·대북쌀지원 등 집중 추궁

1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경제·농업·인사·외교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을 집중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역 현안인 F1 대회 정부 지원 부족과 여수박람회 사회간접시설 미비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압박할 방침이다.

1일 첫 물꼬를 튼 강기정 의원은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 서민정책 후퇴, 이명박 정부의 보은인사·회전문인사·낙하산 인사 등 인신사·난맥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또 전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수사를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더 큰 정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몸통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열리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를 비전·전략·성과가 없는 ‘3무(無) 외교’로 대한민국이 변방의 외톨이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그는 또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대북강경정책과 대미 추종외교를 추진,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4강 균형외교의 틀을 망가뜨려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 기류만 형성하고 말았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김성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700만 해외동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그는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용섭 의원은 ‘세계 10위권 경제성적표 뒤에서 신음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란 주제로 정부의 한일 외교정책을 비판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국치 100년이 되는 올해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해결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도록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9대 제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윤석 의원은 3일 열리는 경제분야 I 대정부 질문에서 ▲쌀 대북지원 문제 ▲매추값 파동 등 농산물 유통 문제 ▲에그플레이션(농업으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 우려 ▲정부의 F1 대회에 대한 안일한 자세와 지원 미비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날인 4일 열리는 경제분야 II 대정부 질문에서 조영택 의원은 정부

의 지원을 지적한 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또 미소금융제도의 실효성과 말뿐인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을 낱말이 파헤칠 방침이다.

같은 날 김영록 의원은 각종 농업지표를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를 강력히 추궁할 방침이다. 그는 또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 미국에 끌려다니는 정부의 굴욕적 입장을 비판하는 한편 모든 FTA 협상으로 괴멸적 농업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5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주승용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발원으로 나타난 총리의 복지관 추궁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재원조달 방안 문제점 ▲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재원 악화 등을 지적하고 F1 대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짚지 않도록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지원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출범 한달 맞은 민주당 손학규호

지지율 급상승... 4대강·FTA 과제로

춘천 집거를 끝내고 현실 정치에 복귀하자마자 화려하게 대표로 부활한 손학규의 민주당 체제가 3일로 한 달을 맞는다.

손 대표는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선후보 지지율의 가파른 상승을 이끌었으며 탕평인사를 통해 성공적인 안착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손학규의 정치 색깔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여부가 진정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 기대할 전망이다.

손 대표는 취임 이후 실시된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며 그동안 야권 지지도 1위를 지키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에 제치면서 유력한 야당 후보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 부동의 1위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을 가정한 상황에서 지지도 격차가 별로 없



었다는 말도 들린다. 손 대표는 지난 한달 간 수권 정당 의로 대를 다지기 위해 대

여 강공 드라이브와 대국민 현장 행보를 두 축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4대강 사업과 개헌 등을 고리로 야권에 각을 세우며 선명성 행보에 속도를 냈고 하루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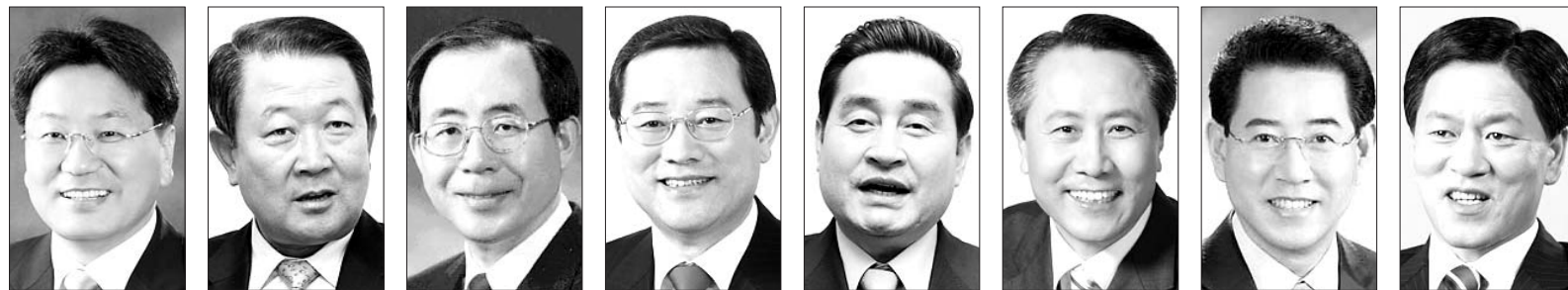
대표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연연치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취임 시의 약속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 눈앞에 난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적으로는 4대강 예산 국회 국면에서 대(對)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서 당 내 이견을 정리해야 한다. 나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지상 과제인 야권 통합·연대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1일 “그동안 당 안착을 위한 준비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손학규 색깔의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비전과 대안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기정 의원 박주선 의원 김성곤 의원 이용섭 의원 이윤석 의원 조영택 의원 김영록 의원 주승용 의원

4대강·사정 정국 뜨거운 설전

여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강기정 “남상태, 김윤옥 여사에 로비”... 靑 “사실 아니다”

1일 열린 국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예산 국회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과 사정 정국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우선 4대강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은 대운하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위장한 대운하 사업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김경권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배춧값이 폭등하고 인천공항을 매각, 사업비를 충당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이런 날조된 거짓말을 민주당이 퍼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진에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4대강 사업 강행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느라 국정은 곳곳이 타락하고 있고 국가를 물불 안 가리는 건설회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사정 정국과 관련, 민주당은 정부의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부각

시키며 맞섰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총리실 공직 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정치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일명 ‘대포폰’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내사 보고서와 대포폰 존재 여부에 대해 시인했다.

또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인 로비에 김윤옥 여사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이날 “남 사장은 지난 2월 초 청와대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나 연인로비를 했으며 2월10일경 김 여사가 정동기 민정수석에게 남 사장의 연인을 지시했고, 정 수석이 민우성 산업은행장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주장한 뒤 “이런 로비과정에서 천 불짜리 아멕스 수표 묶음의 거액의 사례금이 김 여사 등에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강 의원의 제기한 의혹들을 낱말이 부인하고 일축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국회의원이 면책권이 있다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구속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포항)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99,000원) 잠수함, 유람선,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호텔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6:50)출발(단, 일요일은 16:30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증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녹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호텔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10)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일요일 별도 문의)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증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15,000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투어 + 항공투어] 129,000(주중) / 149,000(주말)
--	--	---

● 농 협 ● 정정아 1079-12-183903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문의: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 www.jejumt.net | **협찬 남해고속 씨월드고속웨리**